

01 교회소식

앞으로 더 힘차게!

응답과 축복의 통로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와 학생들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한 '2019 학생 동계수련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영적인 사랑을 소유하려면 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

03 기획특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 안에서 변함없이 충성함으로 혈관성치매 증상과 노안이 사라지고 시력까지 좋아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은 엄정희 권사의 간증.

04 간증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난 기쁨~

뇌수막염을 앓아 놓아가 되었으나 권능의 기도로 양귀의 청력이 살아 나고 전이된 암까지 치료받은 독일 레베카 성도의 간증.

만민뉴스

제878호 2019년 3월 3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응답과 축복, 기도의 능력, 변화의 기회!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성도들이 매일 밤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음으로 영혼이 잘됨은 물론, 합심기도의 위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매년 두 차례 전반기와 후반기에 열리는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는 성도들이 각종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고 축복받는 무수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수많은 성도가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2019년 전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철야' 기도회가 본당과 2성전에서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녹음된 기도를 받고 시작되었다. 이에 성도들은 교회와 개인의 기도제목



을 비롯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 기도회는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의 인도로 3월 31일까지 6주간 진행되며, 각 지성전과 국내외 지교회들이 동참하고 있

다. 매일 저녁 8시 40분부터 준비찬양이 시작되고, 평일에는 밤 11시 40분까지(단, 금요일은 금요철야예배), 주말에는 11시

까지 진행된다. 전 세계 곳곳에서도 GCN방송과 인터넷(www.gcntv.org) 생방송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학생주일학교, 성령 충만 '동계수련회'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019 학생 동계수련회'가 <믿음으로 달려온 우리>라는 주제로 지난 2월 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진행됐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생주일학교 교장 이미경 목사의 교육과 좌담회,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이

인도한 성령 충만 토요일찬양예배 외에 레크레이션 시간, 금요일야 1부 예배와 은사집회, 다니엘철야 기도회 참석 등을 통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져 세상의 주역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꿈과 비전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며 은혜를 되새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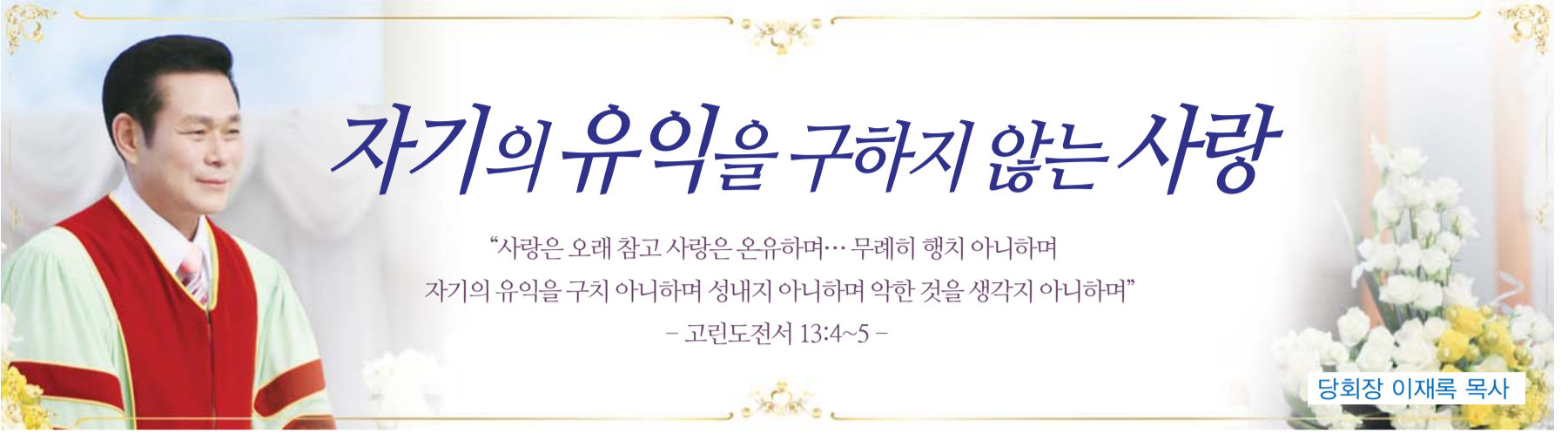
성유림 자매 (중1선교회 회장)



학생 동계수련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특히 금요철야예배가 좋았습니다.

저는 태중에 있을 때 다운증후군 고위험군이었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태중에서 태변을 먹어 출생 당시 위험한 상황이었고, 신생아 때에도 머리에 물혹이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장애가 올 수 있었지요. 하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아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금요철야예배에는 특별히 2부에 은사집회가 있었는데,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이수진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자 파킨슨병이 치료되고 청력이 살아나는가 하면, 특히 신장 투석하시는 집사님이 통회자복을 하고 기도 받은 후 안 보이던 한쪽 눈이 보인다고 간증하실 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실감되면서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되새겨졌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 고린도전서 13:4~5 -

당회장 이재록 목사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사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일반의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는 이기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들이 먹는 분유에 유해성 화학물질을 첨가하는가 하면, 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적으로 중대한 원천 기술을 빼돌려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 해도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영적인 사랑

예를 들어,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번 자기 먹고 싶은 것을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따라 주지만 마음이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상대의 의견을 먼저 묻고 그가 고른 메뉴를 맛있게 먹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자기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지만 의견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설령 자기 의견과 다르더라도 따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이런 차이는 각 사람의 마음에 얼마큼 사랑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의견 대립이 심해져서 다툼이 생기고 서로 간에 화평이 깨진다면 이는 자기 입장만 고집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고 사랑해야 할 부부간에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 자꾸 부딪치고 이해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로 양보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화평할 수 있는 일도 자기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에 화평이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늘 나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보다 자녀들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닮아 예쁘네!”라는 말보다는 “엄마 아

빠보다 훨씬 더 예쁘네!”라는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자녀가 먹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자신보다 자녀에게 더 좋은 옷을 입히길 원하고 자녀가 자신보다 더 똑똑하길 바라며, 더 인정받고 사랑받길 원하지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준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2. 사랑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한 아브라함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범사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한 사람으로는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올 때 조카 롯이 함께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써 더불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소유가 얼마나 많았던지는, 금뿐 아니라 많은 육축으로 인해 물을 놓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길 정도였지요.

아브라함은 화평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창 13:9). 가나안 지경은 물과 풀이 넉넉한 곳이 많지 않으므로 땅을 양보한다는 것은 생존권을 양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사랑했기에 배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롯은 물이 넉넉하고 기름진 요단 들을 택해 떠납니다.

그러면 자신의 유익을 좇아 먼저 요단 들을 택해 떠나는 롯을 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조카가 자신보다 더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어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롯은 자신으로 인해 축복을 받았고 질서상 자신이 뒷사람이니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 중심에서 조카가 더 좋은 땅을 택하기를 원했기에 롯과 화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재산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변 나라 왕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그의 선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벗이라는 칭함까지 얻었지요.

이처럼 범사에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맞춰주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것을 준다는 것은 그 어떤 기쁨보다 큼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최고의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3. 최고의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이루면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매사에 나보다 주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보다 이웃, 나보다 하나님과 주님, 교회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나보다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하지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상대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지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말씀하신 것입니다(행 20:35).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충성하고 헌신한다며 무리하다가 건강을 해쳐서는 안 되지요. 자신의 분량에 넘치도록 충성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만 때로는 몸도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또 기도하고 금식하며 말씀을 무장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요.

간혹 교회 생활에 치우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식하여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교회 일에 충성한다고 가족을 등한시합니다. 교회 생활이 좋다고 주부가 가정에서 소홀하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고, 학생이 본분인 학업을 게을리한 채 모임에만 열심히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은 놀거나 쉬지 않았기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았다고 하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한 것입니다. 주의 일에 충성했어도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 자녀로서 본분을 다했다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하고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했지만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 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다녀오실 때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당연히 해야 할 또 다른 분야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려면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요 16:13). 그래서 성령의 주관에 따라 하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의뢰해 성령의 인도와 주관을 받으면 무엇보다도 마음에서 악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음에 영적인 사랑을 이루면 상황에 따라 선의 지혜가

입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지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마음껏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지 않는 이웃이나 가족에게도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랑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 도움이 될 만

한 사람뿐 아니라 힘들게 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유익을 먼저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피하고 싶고 싫은 마음이 든다면 아직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깨우쳐야 합니다. 열악한 환경이나 자신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만난다 해도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영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지요.

자신과 맞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희생함으로 상대의 유익을 구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2017년 3월, 건강검진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 상태이며 협심증과 혈관성치매가 경미하게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무수한 권능의 역사를 보고 체험했기에 염려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치료받기 위해 사명 감당에 힘쓰며 영적인 변화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지요.

시력 또한 1.0, 1.5로 나왔지만 이후 0.8, 1.0으로 떨어진 데다가 노안으로 인해 글자가 겹쳐 보여 돋보기안경을 착용해야만 해서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눈에 손을 얹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지요. 특히 만민하게수련회나 만민 기도원 은사집회와 같은 응답받을 좋은 기회가 오면 마음과 뜻,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참석하곤 하였습니다.

시력이 2.0으로 좋아지고 혈관성치매 증세 사라져

최근 저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2018년 초겨울, 다니엘철야 기도회 시 악보를 보며 찬양 가사를 불러주는 봉사를 하던 중 글자가 아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12월 14일 건강 검진 시에는 시력표 하단에 있는 글씨까지 또렷이 보였지요. 놀라게도 양안 시력이 2.0으로 나온 것입니다. 더 감사한 것은 노안 증세가 많이 사라져 돋보기 없이도 책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정상 수치이며, 혈관성치매 증세도 사라지고 오히려 심뇌혈관 상태가 제 나이에 비해 5년이나 더 젊게 나왔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지난날을 돌아보니 세계는 하나님께 속한 권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처음 온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9월, 당시 저는 심한 허리디스크로 인해 걷기가 쉽지 않았고 숨이 가쁠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낫지 않았는데 직장 동료의 전도로 금요일아침예배에 처음 참석해서 치료받은 것입니다.

그날 당회장님께서서는 설교 후 환자기도를 해 주실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았는데,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재발되지 않고 강건합니다. 할렐루야!

건강 검진 결과	
수축기 혈압(mmHg)	정상
이완기 혈압(mmHg)	정상
시력(좌우)	1.0 / 1.5
혈색소(g/dL)	정상
공복혈당(mg/dL)	정상
키(cm) 및 몸무게(kg)	정상
체질량지수(kg/m ²)	정상
허리둘레(cm)	57
시력(좌우)	2.0/2.0
정맥(좌우)	정상/정상
혈색소(g/dL)	11.3 / 6.5
혈색소(g/dL)	12.9

▲ 기도받은 후 좌측은 3단계, 우측은 1단계 시력이 호전됨.



엄정희 권사 (55세, 2대대 11교구)

“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행복합니다!
”

필리핀 연합대성회 시 강사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받고 치료받은 사람들이 간증하기 위해 줄을 이어 나오고 있다.



▶ 페루 연합대성회 홍보를 위해 현지인들에게 성회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엄정희 권사.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니 가족복음화도 이뤄

저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중증 허리디스크를 단번에 치료받은 후 하늘을 날 것만 같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는 물론 무언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에 성가대와 예술선교단 사명을 맡아 열심히 감당했지요.

그러던 1994년, 고모의 소개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남편도 교회에 함께 나올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더불어 제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몹시 못 마땅히 여겼지요. 더 나아가 핍박이 심했지만 저는 예배 때 증거되는 설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으로 섬기고자 노력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마음도 열려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저를 점점 믿어 주시더니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001년 9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배려 속에 당회장님께서 인도하시는 ‘필리핀 연합대성회’ 현장에서 예술선교단 단원으로서 부채춤 공연으로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회 장소는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기에 성회 전 기자회견 시, 기자들은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데 야외에서 집회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당회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당회장님께서서는 “태풍은 소멸되거나 진로를 바꿀 것이고 성회는 좋은 날씨 가운데 치러질 것이니 직접 보실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태풍은 진로를 바꿔 필리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성회는 맑은 날씨 가운데 성공적으로 치러졌지요. 또한 성회 당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죽은 사람처럼 뻗뻗하게 굳은 청년이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고, 들것에 실려 왔던 환자들이 걷게 되는 등 권능의 현장을 목도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4년 12월, ‘페루 연합대성회’ 시에도 앞서 40일 동안 페루에 머물면서 성회 홍보를 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딸이 제가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교구 조장으로서 영혼들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요.

지난 30년 동안 만민중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의 하루하루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세계 “내가 여기 있어!” 하시는 것처럼 살아 계신 증거들을 항상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한 것 이상으로 많은 응답과 축복을 주셨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운 천국 소망으로 가슴이 설레는 축복의 제단으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이든지 제가 행한 것보다 넘치게 갚아 주시는 신실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 제 양귀로 소리를 듣고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니 꿈만 같아요! ”

레베카 바르바라 볼라트 성도 (50세, 독일)

저는 세 살 때 뇌수막염을 앓으면서 고열로 인해 그만 농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으니 지인들은 물론이고 가족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요. 부모님은 제게 소리를 되찾아 주고자 각종 병원을 찾아다니셨지만, 치료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더욱이 2005년에는 유방에 종양까지 생겼는데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암환자들에게 처방하는 독한 약들을 오랫동안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멈추지 않았고 2011년에는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암세포가 목 뒤의 뼈로까지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목을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고 통증도 극에 달했지요.

의사는 “이 종양은 치료가 쉽지 않은 아주 심각한 악성 종양이며 오래 살지 못할 확률이 80%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도 너무 안타까워하며 제 손발이 되어주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

그러던 중 지인(메이프리오 한센 성도)의 전도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를 통한 권능의 역사에 대해 소개받고, 2016년 4월 네프시스(다중화상 사이트)를 통해 말레이시아 폐낭만민농아교회 예배 시 등록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당회장님의 기도로 응답받고 치료받은 간증들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특히 암을 치료받았다

는 간증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나도 치료받을 수 있을까’ 방법을 찾게 되었지요.

2017년 만민하계수련회를 앞두고, 당회장님께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꼭 『십자가의 도』 책자를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섭리가 담긴 이 책을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 생활을 하며 각종 예배와 다니엘철야에 참석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였지요.

권능의 기도로 오른쪽 귀의 청력이 살아나고

드디어 2017년 8월 만민하계수련회에 남편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직접 체험한 당회장님의 권능은 감탄의 연속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치병, 난치병을 치료받는 것을 보며 ‘나도 치료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이 생겼고, 그러던 중 제 오른쪽 귀가 전과 다름을 느꼈습니다. ‘웅’하는 진동 같은 것이 지나간 뒤 청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음을 체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제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동되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목에 전이된 암으로 인한 증상도 호전되어 너무나 행복했지요. 저는 권능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며, 2018년 하계수련회 때에는 청력과 목에 전이된 암을 온전히 치료받고 싶어서 1년 동안 매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왼쪽 귀의 청력도 살아나며 전이된 암도 치료받아

2018년 8월 2일(목), 수련회 참석 차 한국 만민중앙교회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성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기도받고 열린 오른쪽 귀가 더 잘 들리는 것입니다.

8월 6일(월) 수련회 첫날 교육 후에는 당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감사 이수진 목사님의 전체 기도를 받을 때 뒤쪽에서 불같은 것이 뜨겁게 제 몸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뒤 왼쪽 귀가 열린 느낌이 들었고, 전이된 암으로 움직여지지 않던 목이 쉽게 돌아가며 통증 또한 사라졌지요. 수련회를 통해 양쪽 귀의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변의 소음이 들리고 누가 제 뒤에서 말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에 전이된 암으로 인한 고통에서 해방돼 몸도 가볍고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남편도 너무 행복해하고, 어머니도 “네가 교회에 다니더니 늘 행복한 얼굴이구나!”라고 말씀하시지요. 제 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져서 요즘은 제가 오히려 남편 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 각종 예배와 매일 다니엘 철야 기도회 독일수어 통역으로 봉사하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암의 통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놀라우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2017 만민하계수련회 시 치료받은 농아 성도들이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

2018 만민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독일수어 통역 봉사과 잡자리 체험으로 행복해하는 레베카 바르바라 볼라트 성도.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동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3478-9668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도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840-2906, 010-4710-9649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평덕신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